

머크, 달력으로 한국 알리기 앞장

머크(Merk)는 전통 민화를 담은 2014년도 달력을 전 세계 머크지사에 송부했다.

한국머크(대표이사 미하엘 그룬트)는 11월18일 송년 간담회를 가지고 달력을 통해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달력 프로젝트>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 미술색채가 반영된 달력을 머크가 진출한 67개국 지사에 배포해 한국미술 및 한국미술 작가를 자연스럽게 외국에 소개하는 한류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달력을 제작하지만 한국머크는 한국미술 작가를 후원하고 작품을 달력을 매개체로 활용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알린다는 데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머크 미하엘 그룬트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달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3/11/18>